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 김재영
주필 김재영
발행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270-1
전화 449-791
대외협력부 449-791
외대신문사 (☎) 449-792-7128
외대학보 (☎) 449-795-7048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향안리
인쇄인 김영로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등인자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4523호

제 524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9월 26일 (화요일)

전교조 사수운동 활발히 전개

서명운동·일일찾집등 지속적으로 24일 범국민대회 2백여명 참가하기도

지난 9월24일(일) 열린 「전교조 탄압저지와 노동·교육법 개정 폐지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에 참가한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것을 비롯해 양캠퍼스에서 「전교조 사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서울캠퍼스 「전교조·전대협사수 및 민중운동연합체를 위한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양 캠퍼스 학자사업 진척없어 학교, 무성의 학생, 준비부족

서울캠퍼스 학원자주화 2차공정회가 어제(25일)오류4시 학자사업위 및 학생 40여명이 열었던 가운데 노조국장에서 열리던 1시간 동안 회의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다수 학생들의 무관심속에 진행된 이날 공정은 고시반이었던 전담, 교과과정개편의 구상등의 절박성이 있었으나 학자사업 위촉 담당인 학교측의 반대입장 철저히 무시하고 학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학자사업에 관한 홍보의 시급함과 아울러 학자사업 위촉의 시급한 사업분석등이 요구되고 있다.

9월21일(목) 미네르바관에서 「전교조 합법화추진위원회」를 위한 2차 국민대회, 「전교조 탄압저지와 노동·교육법 개정 폐지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에 참가한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것을 비롯해 양캠퍼스에서 「전교조 사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서울캠퍼스 「전교조·전대협사수 및 민중운동연합체를 위한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양 캠퍼스 학자사업 진척없어 학교, 무성의 학생, 준비부족

서울캠퍼스 학원자주화 2차공정회가 어제(25일)오류4시 학자사업위 및 학생 40여명이 열었던 가운데 노조국장에서 열리던 1시간 동안 회의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다수 학생들의 무관심속에 진행된 이날 공정은 고시반이었던 전담, 교과과정개편의 구상등의 절박성이 있었으나 학자사업 위촉 담당인 학교측의 반대입장 철저히 무시하고 학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학자사업에 관한 홍보의 시급함과 아울러 학자사업 위촉의 시급한 사업분석등이 요구되고 있다.

「전교조사수」와 공안정치분쇄를 위한 전국대 결의대회, 「전교조 사수운동」에 대해 사법대 학원동에서 「전교조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미국은 지금까지 군사사소정권을 유지시켜왔으며, 대한민국은 역시 미국의 경제위기를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임이다」고 언급하며, 「독재정권과 미국의 본질을 가르치는 참교육을 위해 전교조저지운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캠퍼스에서도 지난 8월29일(화) 「전교조 합법화추진위원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양 캠퍼스 학자사업 진척없어 학교, 무성의 학생, 준비부족

서울캠퍼스 학원자주화 2차공정회가 어제(25일)오류4시 학자사업위 및 학생 40여명이 열었던 가운데 노조국장에서 열리던 1시간 동안 회의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다수 학생들의 무관심속에 진행된 이날 공정은 고시반이었던 전담, 교과과정개편의 구상등의 절박성이 있었으나 학자사업 위촉 담당인 학교측의 반대입장 철저히 무시하고 학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학자사업에 관한 홍보의 시급함과 아울러 학자사업 위촉의 시급한 사업분석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1회 세미나도 했다. 이같은 학·내외 전교조 사수운동에 대해 사법대 학원동에서 「전교조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한 「미국은 지금까지 군사사소정권을 유지시켜왔으며, 대한민국은 역시 미국의 경제위기를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임이다」고 언급하며, 「독재정권과 미국의 본질을 가르치는 참교육을 위해 전교조저지운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캠퍼스에서도 지난 8월29일(화) 「전교조 합법화추진위원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양 캠퍼스 학자사업 진척없어 학교, 무성의 학생, 준비부족

서울캠퍼스 학원자주화 2차공정회가 어제(25일)오류4시 학자사업위 및 학생 40여명이 열었던 가운데 노조국장에서 열리던 1시간 동안 회의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다수 학생들의 무관심속에 진행된 이날 공정은 고시반이었던 전담, 교과과정개편의 구상등의 절박성이 있었으나 학자사업 위촉 담당인 학교측의 반대입장 철저히 무시하고 학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학자사업에 관한 홍보의 시급함과 아울러 학자사업 위촉의 시급한 사업분석등이 요구되고 있다.

취업준비자를 위한 특히, 여성들의 취업준비를 위하여 여학생들의 진출가능한 진로들을 소개하고 실용적문제들을 다루어 이번 설명회 및 특강은 9월28일(목) 오후 10시부터 만도기, 효성그룹, 아이비엠(IBM), 마이콤, 동부그룹의 회사설명회가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10월초 양일 열린 취업특강은 후에 날짜와 시간을 공고한다.

용인「타자특강」실시

오늘 접수 마감

용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9월27일(수)부터 10월27일(금)까지 「추첨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의 접수기간은 오늘(26일)까지이며 접수는 이론학원 식당과 복지위원회에서 받는



▲「전교조 탄압저지와 노동·교육법개정을 위한 제2차 국민대회」가 열리는 연세대를 경칭이 원전봉쇄에 따라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교사 등 2천여명이 풍요에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인후 명동성당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 추할 30일부터 실시

상경대·계화면 「자매결연」예정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9월30일(토)부터 10월3일(화)까지 전북 무안군에서 추계농촌활동을 갖기로 하고 27일(수) 노조국장에서 동학준비위(위원장·황두수(경·신)4) 발족식을 가행한다.

각단체별 관계에 따라, 5백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방은 하계농사와 마찬가지로

회는 무안군 개화면 농민회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용인캠퍼스 추방은 추방장을 들어 교수실측 추방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내부서신 개선 ▲방송장비보상 ▲고시실 1층 출판부의 연구실로 전환 ▲강학금기금역 확대 ▲고시실운영비의 증액등을 제시하였으나, 시, 생사, C.P.A. 3개반만 이를 수락, 정성애에 들어갔다.

고시실전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사시반은 학교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학교측5인 학생총50으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10월 초에 학교측을 하기로 하였다. 학생자치서명운동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가운데 진행된 22일 협상

이후, 지난9월19일(화)자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사법고시반은 학교측과의 별다른 합의의견이 없던 채 지난 22일(금) 일일, 단식농성을 하고 절거농성에 돌입했다.

4개 고시반내부에서도 고시실 이전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가운데 진행된 22일 협상

이후, 지난9월19일(화)자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사법고시반은 학교측과의 별다른 합의의견이 없던 채 지난 22일(금) 일일, 단식농성을 하고 절거농성에 돌입했다.

4개 고시반내부에서도 고시실 이전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가운데 진행된 22일 협상

본교생 8명 광화문앞 시위

「미국 공개사과」요구

수배학생연행, 구속될뚝

금년 2월 미군중사 해리데이 카도 2명 경찰관(경·신)1명의 부친 장반용씨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리데이의 유가족」과 「미국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21일(목) 광화문앞에서 가두전을 하던 본교생 8명이 추방경찰서로 전한 연행요청서에 22일 밤 11시경

이들은 「살인범 해리데이가 불구속된 뒤였기에 그치면서 법정소속으로 유가족을 구속(1명), 불구속(3명)시킨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의 명령과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였다. 한편, 화염병질법과 관련된 지난6일부터 수배중인 사법고

수배학생연행, 구속될뚝

금년 2월 미군중사 해리데이 카도 2명 경찰관(경·신)1명의 부친 장반용씨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리데이의 유가족」과 「미국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21일(목) 광화문앞에서 가두전을 하던 본교생 8명이 추방경찰서로 전한 연행요청서에 22일 밤 11시경

이들은 「살인범 해리데이가 불구속된 뒤였기에 그치면서 법정소속으로 유가족을 구속(1명), 불구속(3명)시킨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의 명령과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였다. 한편, 화염병질법과 관련된 지난6일부터 수배중인 사법고

용인 정기학생총회 개최

생협건준위 구성등 총학사업보고

용인캠퍼스 「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지난 9월22일(금) 오후 2시 명수당 노조국장에서 5백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학기 총학생회 사업과 학원자주화사업보고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총학생회 집행기회국장 김태환(서문·노)이 ▲노조외대인이 참가할 수 있는 대외적인 행사 개최 ▲내외수강학우 발부추진을 계속할 수 있는 문화사업(서문·독)이 2학기 복지사업에 대해 「대학장 협동조합(이하 생협)건설준비위를 구성 생협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등을 밝힌뒤 현재 학교측과의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도중 수배중인 총학생회장 윤원철(사회·경)4)이 참석, 인사말을 통해 「공안정국과

새와 협력관계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 총학생회 집행기회국장 김태환(서문·노)이 ▲노조외대인이 참가할 수 있는 대외적인 행사 개최 ▲내외수강학우 발부추진을 계속할 수 있는 문화사업(서문·독)이 2학기 복지사업에 대해 「대학장 협동조합(이하 생협)건설준비위를 구성 생협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등을 밝힌뒤 현재 학교측과의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도중 수배중인 총학생회장 윤원철(사회·경)4)이 참석, 인사말을 통해 「공안정국과

새와 협력관계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 총학생회 집행기회국장 김태환(서문·노)이 ▲노조외대인이 참가할 수 있는 대외적인 행사 개최 ▲내외수강학우 발부추진을 계속할 수 있는 문화사업(서문·독)이 2학기 복지사업에 대해 「대학장 협동조합(이하 생협)건설준비위를 구성 생협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등을 밝힌뒤 현재 학교측과의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도중 수배중인 총학생회장 윤원철(사회·경)4)이 참석, 인사말을 통해 「공안정국과



「아내와 함께 사는 경우와 같다. 그녀와 함께 산다는 게 때로는 매우 힘들고 역경까지 할 때도 있지만 그녀만이 산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사는 경우와 같다. 그녀와 함께 산다는 게 때로는 매우 힘들고 역경까지 할 때도 있지만 그녀만이 산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내로 가장한 「파괴범」

표현으로 폭력까지지는 딸자. 「반미」의 실상을 파악하겠다는 켈인의 발단은 가난한 한국인의 목을 한층 더 죄려는 「정사숙」의 방관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부인은 우호정신을 위한 미대사의 임무가 아닌 CIA공작정치의 배태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의의를 갖고있다.

표현으로 폭력까지지는 딸자. 「반미」의 실상을 파악하겠다는 켈인의 발단은 가난한 한국인의 목을 한층 더 죄려는 「정사숙」의 방관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부인은 우호정신을 위한 미대사의 임무가 아닌 CIA공작정치의 배태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의의를 갖고있다.

아내로 가장한 「파괴범」

표현으로 폭력까지지는 딸자. 「반미」의 실상을 파악하겠다는 켈인의 발단은 가난한 한국인의 목을 한층 더 죄려는 「정사숙」의 방관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부인은 우호정신을 위한 미대사의 임무가 아닌 CIA공작정치의 배태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의의를 갖고있다.

표현으로 폭력까지지는 딸자. 「반미」의 실상을 파악하겠다는 켈인의 발단은 가난한 한국인의 목을 한층 더 죄려는 「정사숙」의 방관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부인은 우호정신을 위한 미대사의 임무가 아닌 CIA공작정치의 배태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의의를 갖고있다.

아내로 가장한 「파괴범」

표현으로 폭력까지지는 딸자. 「반미」의 실상을 파악하겠다는 켈인의 발단은 가난한 한국인의 목을 한층 더 죄려는 「정사숙」의 방관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부인은 우호정신을 위한 미대사의 임무가 아닌 CIA공작정치의 배태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의의를 갖고있다.

외대학보가 기다린다

쓰다 만 원고지 여백을 채워 주시겠습니까?

수습기자 추가모집

△자 격: 1학년 재학생
△모집부문: 일반기자 ○○명
사건·정치·경제 ○○명
스포츠·취업·문화 ○○명
△원서접수처: 용인캠퍼스(본사·총학생회)1층, 사건1대
△원서접수기간: 9월12일~9월27일
△시험과목:
1차: 국어·영어·사상·역사(기사작성 포함)
2차: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시험일시: 1차-9월27일(수), 2차-9월28일(목)
△시험장소: 서울-사회관 304호
용인-교양관 214호
△시험시간: 오후 5시30분

△국경행사 추대만발
△경찰, 시위참가 권유
△대포를 갖자 보소
△교사반문제 또 발생
△계발만 바꿀 수 있는 해
결방안 마련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의 관점으로 본



한국사회성격의 자주적 규명

필자사정으로 인하여 '4. 80년 대 남한사회성격의 실제적 규명'을 먼저 실고 '3-2, 80년대 남한경제의 새로운 전개과정'을 다음주에 실게 된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기저시리즈 「다시서는 80년 대, 승리하는 90년대」는 그야말로 정치·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의 80년대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객관적 고찰을 기하고, 또한 다가올 이천의 폭풍은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천에서의 실용성검사와 실천력과의 결함부족을 매우 우려해 많은 활동가분들의 제언과 문제제기 또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게된 본문은 80년대 한국사회성격을 규명하려는 여러 입장들의 객관적 수용이 다소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이후 독자 여러분의 더 많은 연구결과들과 문제제기를 받고자 합니다. (편집자)

이대견 (출판 기획가)

1. 머리말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기점으로 권력 박탈을 이룩한 한국 변혁운동이 자주·민주·통일의 가치를 내걸고 진행해 온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이 지난 산산도 변한다는 옛말과도 같이 광주항쟁후 10년이 지난 한국 변혁운동은 그 규모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불패의 위용을 과시하게 되었다.

자주사상과 그에 외기향 지도방법이 국민적 운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주·민주·통일 운동이 전 계층계급의 과제이자 목적으로 정착되어 하루도 쉬 없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실천속에서 단련된 핵심들이 부쩍부쩍 성장하고 이에 기초해 각급의 대중조직이 지역적·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운동의 통일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한국 변혁운동이 의의와, 조직화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여 커다란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비록 오늘 위기에 몰린 미국과 사대대국세력의 탄압이 애국민주세력을 초도화시킬 기세로 자행되고 있지만 한국 변혁운동은 무분규와 순결과 일시적 정지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고 뒷받침 받고 나가면서 승리의 전진을 계속해 가고 있다.

전쟁 정세의 주도권은 애국민주세력의 손안에 있고 승리의 앞길은 애국 민주전열앞에 넓게 펼쳐져 있다.

오늘 한국 변혁운동은 80년대 10년간 민족민주운동의 성과와 결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민족해방의 90년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사대대국세력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한시적이고도 폭압적인 탄압에 चु출하여 민족민주운동이 승리되기를 바랄 수도 없고 민족적 탄압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오늘의 투쟁을 벌여 국민들로부터의 탄압과 억압의 손길을 초월하는 우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변혁운동은 준비의 과제를 하루빨리 달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명실상부 불응이 없는 행동을 피력하며 부단하고도 적극적인 운동의 전개로 변혁혁명의 장성을 다그쳐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애국민주세력과 사대대국

세력의 대결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상이론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민중들 앞에 내걸린 현실한 문제는 애국민주세력의 통일과 단결의 문제이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의 가르침과 교훈을 올바르게 소화해내기 어려웠던 우리들의 미숙함이 그후 대중운동의 단계적 침체할 양상을 초래한 원인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개념화한 실로 서로간에 충돌을 빚어내었다. 소위 사상 이론투쟁으로 일컬어지던 80년대 중반까지의 난립상이 86년 이후의 대중운동의 황금기로 격면하여, 그리고 87년의 전국민적 운동의 확대에 의해서 열렬한 실감을 받게 되었다. 그후 자주사상과 여기에 외기향 변혁이론과 방법적 그 생활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대의 흐름으로 중심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불분하고 아직도 제반 사비 사상이 혼란을 수그러들지 않는 자기만족적으로 현실에 대해 어떤 처연 이음을 불어넣어 오히려 단결과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 사회성격 논쟁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한 지도사상인 자주사상의 사상이론·방법론적 토대에 근거해 한국사회의 현실을 연구하고 올바른 한국사회해방이 갖는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사상·이론적 불결과 통일운동의 약화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 필자는 지금까지 사회성격 논쟁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한 지도사상인 자주사상의 사상이론·방법론적 토대에 근거해 한국사회의 현실을 연구하고 올바른 한국사회해방이 갖는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사상·이론적 불결과 통일운동의 약화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80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에 대하여

80년대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주변부 자본주의론」의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그후 여러가지로 이분화되어 진 사회구체론에 대한 주의·주장이 팽방전을 벌여왔다. 그러면 86년 말에 들어 식민지반봉산 사회론의 등장으로 논쟁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의 논쟁이 한국 사회의 특징에 관한 여러차례의 논쟁이었는데 반해 식민지 반봉산 사회론은 한국사회 모순의 근원을 자

각한 식민지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고 국가권력의 대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아들인 사람들이 식민지 반봉산 사회론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민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다시서는 80년대 승리하는 90년대

< 4 >



▲ 식민지 반봉산사회론은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산을 해명하지 못하는 이론적 지체현상을 보였다.

각한 식민지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고 국가권력의 대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아들인 사람들이 식민지 반봉산 사회론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민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다시서는 80년대 승리하는 90년대

<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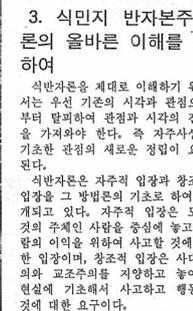
▲ 식민지 반봉산사회론은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산을 해명하지 못하는 이론적 지체현상을 보였다.

각한 식민지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고 국가권력의 대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아들인 사람들이 식민지 반봉산 사회론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민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다시서는 80년대 승리하는 90년대

< 4 >



▲ 식민지 반봉산사회론은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산을 해명하지 못하는 이론적 지체현상을 보였다.

각한 식민지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고 국가권력의 대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아들인 사람들이 식민지 반봉산 사회론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민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다시서는 80년대 승리하는 90년대

< 4 >



▲ 식민지 반봉산사회론은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산을 해명하지 못하는 이론적 지체현상을 보였다.

국가권력 해명이 변혁 이론의 근본과제

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아닌 외세에 의한 식민지 제도로 규정하고 식민지 지배를 위한 도구로서 생산관계의 문제를 바라보았다.

그후 한국사회에 대한 논쟁은 ① 한국사회의 모순의 근원이 무엇인가 -외세의 지배인가, 아니면 내국의 독점관계인가, ②한국사회의 국가권력의 성격은 어떠한가 -외세의 하점권인가, 아니면 독자성을 갖는 권력인가, ③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생산관계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식민지 지배의 주된 기조인가 하는 3가지 영역에서의 논쟁으로 전개되고 그중 핵심은 한국국가권력의 성격문제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이와같은 논쟁을 통해 한국사

각한 식민지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고 국가권력의 대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아들인 사람들이 식민지 반봉산 사회론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민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이제 87년말 88년초에 부분적으로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이하 식민지 자본)이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하고 88년 이후 과거 식민지 반봉산론을

각한 식민지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고 국가권력의 대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아들인 사람들이 식민지 반봉산 사회론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민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이제 87년말 88년초에 부분적으로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이하 식민지 자본)이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하고 88년 이후 과거 식민지 반봉산론을

각한 식민지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고 국가권력의 대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아들인 사람들이 식민지 반봉산 사회론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민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이제 87년말 88년초에 부분적으로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이하 식민지 자본)이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하고 88년 이후 과거 식민지 반봉산론을

각한 식민지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고 국가권력의 대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아들인 사람들이 식민지 반봉산 사회론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사민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 그 이상이론적, 방법론적 근원은 자본주의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이제 87년말 88년초에 부분적으로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이하 식민지 자본)이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하고 88년 이후 과거 식민지 반봉산론을

Advertisement for '대우가 있습니다.' (There is Daewoo). It features a quote from a philosopher: "지식인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인간이다. 그는 이제 처음부터 어떤 (지식)도 마음대로 탐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떤 (권력)도 지닐 수 없다. 그들은 어떤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알'이 진실한 범위로부터 추론된 것은 아니다. 보편성이 지배계급의 특수주의의 particularism에 의해, 진실성이 신화에 의해 폭력적으로 혹은 교묘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Below the quote is the Daewoo logo and the slogan '대우가 있습니다.' (There is Daewoo).

Advertisement for Daewoo.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several sea turtles swimming in the ocean. The Daewoo logo is in the top right corner. The text '대우가 있습니다.' (There is Daewoo) is at the bottom.

